

산란계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 자조금사업 늦어질수록 불황 길어진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 4월까지의 난  
 기는 장기적인 불황과 2003년 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도태에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양계협회에  
 서 일부의 자조금으로 마스크와 협력업체 등의 홍  
 보에 의한 소비 증가가 한 몫을 하였던 것 같다.

2005년도 계란소비가 약 20개가 늘었다고 한  
 다. 계란 소비는 계란이 부족할 때 유통기한도 짧  
 아지고 싱싱한 계란이 유통이 된다. 그러나 반대  
 로 과잉생산과 소비가 침체하면 유통기한도 길어  
 지고 신선도도 떨어져 소비지들도 외면하게 되어  
 결국 계란이 지체되고 유통도 길어지고 시장이 혼  
 란이 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양계업계가 타 축종에 비해서 계  
 란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이  
 다. 그것은 양계협회에 기금이 절대 부족하기 때  
 문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양계협회에서 무엇을 하  
 느냐고 반문하는 곳도 있으나 협회에 기금이 많아  
 야 홍보도 하고 유통질서도 잡고 질병예방은 물론  
 안정적으로 양계업을 지원할 수 있을텐데 기금이  
 부족하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적극 대응을 못하는  
 것이다. 요즘 각종 매체에서 이들이 멀다하고 조  
 류인플루엔자 방송을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



오 세 을  
 포천산란계지부장

구하고 우리업계는 적극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  
 렇 때 일수록 대응 광고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국내에서 생  
 산되는 양계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소비자들  
 에게 홍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계란에 대한 요리, 영양상태 그리고 현재 한국  
 에서의 계란소비는 안전하다는 홍보방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기금의 고갈로 인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채란분과위원회와 신발협  
 동을 중심으로 자조금 사업을 자체조달은 물론 사

료협회, 부회장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협회 회원들끼리 모금한 자조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료협회와 상의하여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사료값에 포함시켜 거출하는 것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료공장에서는 협력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일부 사료회사들은 협조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자조금 사업이 정체된 상황이다.

협조하여 주겠다는 회사는 무엇보다 고맙지만 비협조 사료 회사는 원망스럽다. 우리 생산자가 부담하겠다는데 왜 협조를 안 해주는지 너무 상흔에만 어두운 일부 메이저급 사료사들에 대해 우리 양계인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켜볼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생산자들이 무조건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지금 정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하여 문화예술계는 물론 농축산업계가 초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자조금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자조금 모금에 동참을 해야 할 것이다. 채란업자는 적극 동참하고 종계장, 사료업체 등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액 부타을 요청하여야 한다. 농수산부에서 그나마 자조금액의 50%를 지원하여 주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1년 전 일본 양계를 들러 볼 일이 있어 유통업계와 양계업을 하는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일본의 양계업계는 유통업과 위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더니 일본도 국가나 행정당국에서 타축종 보다 양계업계



만 도움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도 양계인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였다고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채란인들이 자조금 모금에 동참하여 우리의 활로를 열어야 할 때라 믿으며 현재 우리 채란인들조차도 자조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협조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계란 홍보도 안 되고 유통의 질서도 안 잡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양계인들이 어려운 불황속에서 힘을 합쳐 자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할 때 우리 양계업계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양계**